

제주사회복지신문

>2017년 5월 1일 (월간)

www.jejubokji.net

>전화 : (064)702-3783-4 / 팩스 : (064)702-3383 제115호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해야”

‘제주복지 10대 과제’ 해결 위한 선결 조건 제시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 등 공동 주최

2017 사회복지포럼서 심경수 교수 주제발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지난달 17일 협의회 2층 삼다수홀에서 ‘2017 제주 사회복지포럼’을 개최했다.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와 제주복지공동체포럼(대표 유진익)이 공동 주최하고,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조사연구위원회(위원장 고보선)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지난 2016년도 ‘제주복지 원탁회의’에서 도출된 ‘제주복지 10대 과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 심경수 교수가 ‘제주복지 10대 과제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실시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심경수 교수(제주대 행정대학원)가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심 교수는 지난해 선정된 제주복지 10대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의회·복지현장·시민사회·

장애인 주거안정 차원 임대료 지원 필요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한 전달체계 보완도

연구기관(학계)의 소통과 전문성을 담보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보선 조사연구위원장(제주국제대 교수)의 진행으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복지공동체포럼 의원, 각 분야별 복지현장 전문가, 학계 등 포럼 참석자 30여명이 제주복지 10대과제 해결을 위해 100분 간 활발한 난상토론을 벌였다.

토론에서 고현수 대표(제주장애인인권포럼)는 행정과의 협치 관계를 얘기했다. “신뢰관계에 의한 실질적 민·관 협력적 관



▲ 지난달 17일, 제주사회복지협의회 2층 삼다수홀에서 ‘제주복지 10대 과제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주제로 ‘2017 제주사회복지포럼’이 개최됐다.

계가 돼야 하는데, 우리의 현 주소는 지도와 강제에 익숙한 호출식·형식적 협치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며 “협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모니터링하는 주체가 아닌, 제도적 내용까지 심의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석왕 원장(제주장애인요양원)은 “장애인복지에 주거문제가 심각하다”며 “임대료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주거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포럼의 모든 참가자가 ‘제주복지 10대 과제’ 해결을 위한 의견들

을 제시했다.

한편, 외부 자문을 맡은 김성욱 교수(호서대 사회복지학과)는 포럼에서 나온 내용들을 정책으로 제안·실현되기 위해 ▲제주복지 기준선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 근거 마련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방법(전달체계)에 대한 고민 ▲재량적 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데이터 확보 등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의회 김성건 사무국장은 “포럼을 통해 나온 내용을 참고해 올 하반기 사회복지정책 공모사업을 펼칠 계획”이라며 “2018 지방선거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에 현장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ellow ID’ 서비스 개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도민 및 사회복지시설·단체 종사자들에게 빠른 정보 전달을 위한 서비스 ‘Yellow ID(옐로아이디)’를 시작했다.

옐로아이디란 다음카카오 카카오톡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즈니스 서비스 중 하나로, 협의회는 이를 통해 교육·행사 안내, 운영사업(사회복지아카데미, VMS, 푸드뱅크·마켓 등) 등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소식을 발빠르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뿐 아니라, 협의회 사업과 관련 1:1 실시간 상담서비스도 제공 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카카오톡에서 제주사회복지협의회를 검색 후 친구 추가를 하면 된다.

지면소개

- 종합 3면
발달장애인 위한 ‘플랫폼’ 구축
- 사회복지소식 4면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기념 도내 행사
- 오피니언 6면
시론 칼럼 기고
- 기획 7면
19대 대통령 후보에게...사회복지계 제안

비영리 내일 프로젝트

비영리 내일 프로젝트는 비영리단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리더십과 실무자에게 특화된 강의만을 담은 모금 교육 프로젝트입니다.



1. 교육과정 : 과정별 16시간

- 리더십 : 2017. 5. 23(화)~24(수), 09:00~18:00(8시간×2일)
- 실무자 : 2017. 5. 30(화)~31(수), 09:00~18:00(8시간×2일)



2. 교육장소 : 사회복지협의회 2층 삼다수홀

3. 교육대상

- 리더십과정 : 사회복지시설·단체 중간관리자 60명
- 실무자과정 : 사회복지시설·단체 실무자 60명



4. 주 관 : 한국모금가협회

공동주최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한국모금가협회 등

5. 교육내용

- 리더십과정 : 모금 진단 및 평가, 모금 전략, 고객 모금 방법 등
- 실무자과정 : 모금 트렌드, 안내문 기획 및 디자인,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등

6. 교육신청기간 : 2017. 3. 22(수)~정원 마감 시 / 분야별 선착순 각 60명 접수

7. 교육신청 및 교육비 납부

• 한국모금가협회 홈페이지(www.kafp.or.kr) 접속 → 교육신청 → ‘비영리내일프로젝트’ → ‘제주’ 선택

8. 교육비 : 일반 50,000원, 모금가협회 회원 30,000원(교재 및 증서 제공)

※ 문의 : 한국모금가협회 박은민(02-555-0508), 사회복지협의회 황아삭(064-702-3784)

제주도의회 의정소식

‘범죄피해자 중 생계 어려운 경우’ 포함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지난 달 7일 열린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범 의원발의)을 원안 가결시켰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조례 제2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피해자로 관할 경찰관서 등에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포함(안 제2조 제7의2호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범죄피해자의 피해정

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피해자에 대한 신속지원이 필요하고, 사건 초기 현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경찰과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협력이 중요하다”라며 “범죄피해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원할

한 피해자 지원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임시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 네 건의 개정조례안이 상정·통과됐다.



▲ 지난달 7일 열린 제350회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제주시, 부정수급 방지에 박차 기초생활보장과...환수 협업시스템 운영

제주시는 복지재정효율화를 목표로 복지 부정수급 방지·적발 및 환수노력을 위한 협업시스템을 오는 5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복지급여 및 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환수 협업시스템은 기초생활급여부서인 기초생활보장과를 총괄부서로 하고, 주민복지과·경로장애인지원과·여성가족과·주택과를 협업부서로 구성해 부정수급 방지 및 환수노력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부정수급 1,219명을 적발해 10억1천만원을 환수 중에 있으며,

예금압류도 7건에 1천만원을 단행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1천9백만원을 환수 조치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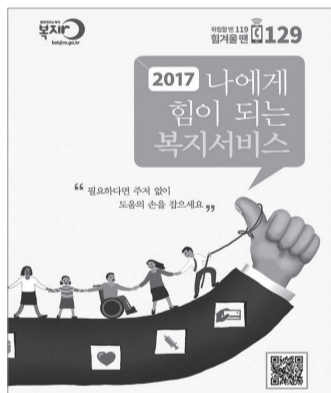
제주시 관계자는 “복지재정 효율화, 복지누수 제로화를 위해 부정수급 방지 및 환수강화에 따른 부서 협업시스템을 가동, 부정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복지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시민들도 부정수급 발견시에는 복지포사이트(www.bokjiro.go.kr)나 제주시청 기초생활보장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한 권’에 담아

보건복지부, 373개 사항 담은 가이드북 개정 발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달 24일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 373개를 한 권에 담은 ‘2017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개정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7월 초판이 발간된 후 정례화시켜 이번이 세 번째 발간으로, 본인 상황에 따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상황별 복지서비스를 나열하고 생애주기별·대상특성별·가나다 순 색인을 제시해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주요특징으로 아동·여성, 청년, 노령층, 장애인 등 대상별로 e-book과 QR코드(시각장애이용 음성지원 포함)를 제작하고 ‘지원절차 및 가나다 순 색인’ 추가, 포켓용 주요사업50 소책자와

노령층 맞춤형 가이드북 제작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포 수량을 전년 7만부에서 20만부로 크게 확대하고, 정부 및 관련 기관 등에서 이 책을 활용해 자체 제작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원문 제공과 함께 저작권을 개방하고 있다.

복지부는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복지서비스가이드북’과 ‘홍보포스터’를 배포할 예정이다.

도, ‘찾아가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운영

도내 50여개 초등학교 참여...학생들 호응 높아

제주도는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교육대상은 자발적으로 신청한 제주시 한라초, 해안초, 서귀포시 귀덕초, 동홍초 등 도내 50여개 초등학교로 지난 3월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시행한다.

이번 교육의 취지는 올해로 37회 장애인의 날을 맞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를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여건임을 감안해 유년기 시절부터 장애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된다.

(사)제주장애인연맹을 교육 대행자로 지정·시행하고

전문강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이론교육, 영상교육, 토론교육, 체험교육 형태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된다.

박일홍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유년기인 초등학생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 체득하게 함으로써 학생들 반응이 매우 좋다”고 말했다.

758 1377 푸드마켓 FOOD MARKET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나눔”

4월 기탁 현황

- ▲금강축산유통=축산물186kg ▲유진상사=오뚜기식품3,076개 ▲금강수산물유통=수산물50kg ▲금산서당골=174kg ▲꽃비나리는뜨락=떡246개 ▲농업회사법인 서문식품=두부309모 ▲던킨도너츠 제주외도점=도너츠46개 ▲동원F&B제주지점=동원식품2,559개 ▲모양=제과류51봉 ▲빠라빠빵=식빵등68봉 ▲신송식품(주)천안공장=장류152kg ▲신화유통주식회사=식재료36개 ▲아라어린이집=쌀10포대(10kg) ▲얌얌영농조합법인=빵64봉 ▲영화식품=식재료116개 ▲이든이네=건멸치18kg ▲자연드림 이도점=빵184봉 ▲제주보리촌=보리빵490개 ▲제주특별자치도=감귤주스200개 ▲갯어클락=식빵42봉 ▲파리바게트 동광초점=빵41봉 ▲행복나눔마트 오라점=빵277봉

• 기탁문의 : 사랑나눔푸드마켓 • 문의전화 : 064-758-1377

사회복지협의회 2017년 3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가결연후원	800,000	0
난치병환아후원	55,000	0
자원봉사후원	750,000	750,000
복지사업후원	910,000	727,980
푸드마켓후원	3,305,000	106,170

*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제주사회복지신문 발행안내 www.jejubokji.net

우) 633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풍남 8길 12-1 (예전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 1동 1112-1)

발행인 : 고치환 편집인 : 고경운 편집자문 : 김길웅·김범훈·한영조

■ 창간일 : 2007년 9월 1일 ■ 등록번호 : 제주 라 01010

■ 편집위원실 : 070)4726-8826 ■ 편집디자인 : 디자인리더제주

발달장애인 위한 '플랫폼' 구축

제주 지원센터, 'ONE-STOP' 복지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자폐성장애) A씨는 보호작업장 퇴근 후 이용할 수 있는 여가문화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찾아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찾을 수 없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러던 중 A씨의 어머니는 작년 12월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개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노형동에 위치한 제주센터를 방문했다.

제주센터는 A씨, 그리고 보호자와 여러차례 상담을 하면서 A씨가 퇴근 후 단순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큰 것을 알게 됐다. 이에 센터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A씨가 즐겁게 참여하며 대인관계까지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장애인체육회 프로그램을 찾아 연계해 주었다.

가족 중에 발달장애인이 있다면 어떤 복지 서비스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어디로 가야하는지 전공공한 경험이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이런 경험이 있는 도민이라면 제주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찾아 'ONE-STOP' 지원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제주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강석봉)는 특정 장애인만을 위한 최초 법률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전달체계 역할을 맡아 지난해 12월9일 노형동에 개소, 운영 중이다.

발달장애인과 만6세 이하의 발달지연 영유아를 위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맞춤형서비스를 연계하

고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가 발생하면 현장조사, 형사사법 절차지원, 보호조치 등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해 살아가도록 후견인 선임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지원사업도 수행한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계자는 "등록장애인의 7~8%가 발달장애인 전국 평균이지만 도내 발달장애인 수는 작년 기준 3484명으로 등록장애인의 10%에 이르고 있다"며 "발달장애 조기발견에서부터 개입까지, 경증에서부터 중증 발달장애인까지 생애주기 욕구를 고려한 ONE-STOP 복지서비스를 확대·제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수눔음육아나눔터' 추가 공모

최대 5천만원 공간 리모델링비 지원

31일까지 11개소 모집

제주도는 도민들의 자녀양육으로 인한 육아부담 경감과 다양한 돌봄활동을 위한 소통공간 조성으로 양육친화 기반을 새로 확충하고자 추진하는 '2017 수눔음육아나눔터 조성사업'을 이번 달 31일까지 추가 공모한다.

올해 조성 지원하는 수눔음육아나눔터는 15개소로 지난 2월24일까지 1차 공모를 통해 4개소 지원을 확정했다. 이번 추가공모를 통해 11개소를 더 모집하고 1개소당 5천만원 범위 내 공간 리모델링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눔음육아나눔터 공간 조성 완료 후에는 프로그램 운영, 제세공과금 등 경상보조로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되며, 제주가족

친화센터 등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지역내 유휴 공간을 확보해 수눔음육아나눔터로 운영하고자 하는 마을회, 부녀회 등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다.

신청공간은 마을회관, 복지관, 문화센터, 관리사무소 등 다양한 민간시설내 유휴 공간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조성 면적은 50㎡(15평) 내외로 수눔음육아나눔터 공간 조성 완료 후 최소 5년간 운영유지를 담보해야 한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수눔음육아나눔터 조성사업을 추진, 현재 도내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까지 전 읍면동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SSN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소식

'기부식품제공사업 연계 업무협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광역푸드뱅크(대표 고치환)는 지난달 3일과 4일 노형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김세룡·문상수 공동위원장), 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김이택·홍순희 공동위원장)와 각각 '기부식품제공사업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부식품제공사업 연계를 통한 노형동·연동 관내 복지사각지



▲ 협의회는 지난달 3일과 4일 노형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좌), 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우)와 '기부식품제공사업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로 협력기로 했다.

푸드뱅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복지 사각지대를 찾아 해소하고, 지역 자원 발굴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 소원이 이뤄질까?"

JDC 후원, '2017 기적의 편지' 접수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초·중·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원 이루기를 돕는 '기적의 편지'를 오는 6월 2일까지(당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받는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이광희, 이하

JDC)의 후원을 받아 이뤄지는 이번 사업은 아이들이 개인적인 소원을 담은 손편지를 보내오면, 이를 심사해 소원을 이뤄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현물지원을 필요로 하는 소원에 한정하며 생계비 또는 의료비를 포함한 현금성 지원은 불가

하다. 접수처는 '제주시 청풍남 8길 12-1(화북 1동)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기적의 편지 사업담당자 앞'이다.

한편, 기적의 편지 심사는 JDC와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추천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1·2차에 걸쳐 진행하며 결과는 6월중 통보될 예정이다.

'랭프유스제주' 외국어교육 봉사

구엄지역아동센터 방문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소속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 중인 청소년외국어교육봉사단 랭프유스제주(단장 고정숙)는 지난달 15일 구엄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외국어 교육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오수현(제주여고2) 봉사자는 "올해 첫 멘토링 활동으로 많은 걱정을 했다"며 "활동이 시작되고 계획대로 일이 진행될수록 점점 더 긴장감이 풀려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봉사하맨' 지역사회봉사단 위촉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달 24일 '봉사하맨 Shall we?' (단장 이도현)를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했다(사진).

한국국제학교 고등학교 10학년)은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돼 기쁘고 감사하다"라며 위촉 소감을 밝혔다.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연 1회 프리마켓을 열어 후원금 모금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도현 단장(한국국제학교 10학년)은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돼 기쁘고 감사하다"라며 위촉 소감을 밝혔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기념 도내 행사소식

제37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화합의 장 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0일 한라체육관에서 제37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기념식에는 장애인 및 가족, 장애복지관련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장애인 가수 차세나씨와 방송인 오다겸씨의 식전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한정효 회장(신체장애인지원회)의 장애인인권헌장 낭독, 유공자표창, 기념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행사장에는 장애인생산물 홍보·판매, 휠체어·보장구 수리 서비스 제공, 직업재활상담·가족 지원 상담, 건강증진 홍보관도 운영됐다.

부형종 회장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2008년 4월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사회 일원에서는 우리 장애인에 대한 억압과 멸시가 자행되고 있다”며 “우리가 하루속히 힘을 모아 사회 전반에 한 목소리로 외쳐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진정한 선진사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장총, ‘장애체험 행사’ 개최

휠체어 이용...비장애인 100여명 참여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회장 부형종)는 장애인의 날을 맞은 지난달 20일 제주도청 공무원 등 비장애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제주도청 제2청사를 출발해 제주도청 정문까지 구간을 휠체어를 타거나 눈을 가리고 걷는 체험을 진행했다.

도장애인총연합회 관계자는 “장애체험을 통해 장애인들의 평소 이동환경을 느껴 보는 계기마련과 장애인편의시설의 중요성을 알게 됐



으며, 옆에서 장애인들과 직접 대화를 나눔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서귀포시 장애인 한마음축제 ‘성황’

제16회 서귀포시 장애인 한마음축제가 지난달 25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장애인과 가족, 각급 기관단체장 및 자원봉사자 등 1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제37회 장애인의날을 기념해 열린 이날 행사는 서흥동 민속사물놀이패의 길트기공연, 박경선 민요공연, 해군제주기지 군악대 군악공연 등 식전행사에 이어 △1부 기념식 △2부 노래자랑,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부대행사로 장애인이해 체험, 무료 건강상담,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또한 기념식에서는 장애와 역경



을 극복한 장애인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등 17명에 대해 표창 및 감사패가 전달됐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제주도지사 표창=신태수 ▲서귀포시장 표창=이점심·김종주·김용삼·김인정·이정순·김문현·정미선·허양숙·고애자·고순정



‘420 장애인 문화제’ 열어

5대 요구안 발표

제주장애인인권포럼(대표 고현수)은 지난달 20일 제주벤처마루 앞마당에서 제주도장애인부모회(회장 박영재)와 공동으로 ‘420 장애인문화제’를 열었다(사진).

이번 행사는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기존 형식적인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대신 장애인의 날 취지에 맞도록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 함께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기획됐다.

장애인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진행된 이번 문화제에서는 유이연 작가의 퍼포먼스 공연, 띠아합창단 공연, 김원필 밴드의 노래공연 등 문화예술공연과 함께 ‘장애인 등급제 폐지, 이동권·건강권 보장, 유사중복사업 철폐 촉구, 장애인 참정권 확보’ 등을 주제로 한 5대 요구안이 발표됐다.

중도입국자녀교육 프로그램

‘Together, High-five’ 운영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정우)는 오는 6일부터 12월 까지 총 31회에 걸쳐 중도입국자녀 교육 프로그램 ‘Together, High-five’를 운영한다.

센터 교육실에서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8세부터 18세까지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토요일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뉘

2~3명이 수준별 수업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언어적,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도입국자녀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712-1140, 담당 이은정)

“2017 문화누리카드 신청하세요”

법정 차상위계층 대상...연간 6만원 한도 사용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은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2017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지난달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개인당 6만원 한도의 전용카드를 발급해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카드 신청·발급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발급되며 이용은 올해 말일까지 가능하다.

소/식/마/당

‘벨롱장’ 셀러 참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은 지난달 8일 북부분관이 운영하는 여성장애인자조모임이 ‘벨롱장’ 셀러로 매월 1회(첫주 토요일) 참여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구좌·조천 지역의 지적성장장애인으로 구성된 자조모임이 지역특색을 살린 소품들을 직접 만들어 판매한다”라며 “셀러 활동이 장애인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힐링 숲 치료’ 프로그램



희망나래활동센터(원장 박인향)는 지난달 14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제주지부 지원으로 실시한 ‘힐링 숲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붉은오름 자연휴양림에서 실시된 이번 프로그램은 숲 속 스트레칭, 오감 통한 숲 느끼기, 숲 밧줄만다라 등 자연과의 교감 활동을 통해 구성원의 유대감 향상과 힐링 기회를 제공했다.

‘동제주 문화대학’ 진행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윤두호)은 구좌읍 어르신들 대상으로 서예·미술·댄스 3개 부문에 ‘동제주 문화대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문화대학은 각 분야별 전문강사에 의해 3월부터 10월까지 매주 1회 진행하고 있다. 복지관 관계자는 “참여 어르신이 해마다 늘고 있다”며 “지역 어르신의 지적욕구 충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안의 나를 찾아서’



가롤로의집(원장 서영숙)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내안의 나를 찾아서’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올해에도 계속 실시하고 있다. 중증지적장애인의 정서 안정과 잠재력 개발을 목표로 도예·원예·퀼트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작품활동을 통해 내면의 긍정적 에너지를 발견하고 미술·음악을 통한 창의적 표현의 기회를 갖는다.

“놀멍! 즐기멍!”



참암재활원(원장 정은경)은 자기 효능감 향상을 위한 ‘놀멍! 즐기멍!’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수학교를 졸업했지만 직업재활 및 외부 복지관 프로그램 참가에 어려움이 있는 원내 이용인 15명을 대상으로 체육활동(매주 수요일)과 요리활동(둘째·넷째 월요일)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2017년 공동모금회 신청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장기근속 직원 해외연수’ 실시



엘린(대표 한봉금)은 지난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3박5일 일정의 ‘장기근속 직원 해외연수’를 방콕과 파타야로 다녀왔다. 연수는 5년 이상 장기근무자에 대한 포상 제도를 도입해 처음 실시됐다. 한봉금 대표는 “이번 연수를 시작으로 매년 해외연수를 시행할 예정이며 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포상 제도를 계획 중이다”고 밝혔다.

정서 함양 ‘힐링 프로그램’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이사장 김효철)는 지난달 14일 자활사업 참여주민 70여명이 참여하는 ‘힐링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프로그램은 69주년을 맞이하는 제주 4·3의 역사를 바로 알고 인권과 평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4·3평화공원에서 실시됐다. 또한, 오름 등반과 고사리격기 등 부대행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켰다.

문화예술 사랑나눔 행사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필수)은 지난달 19일 제주북조리연예인봉사단(회장 윤세진)과 함께 ‘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사랑나눔 사업’을 실시했다. 제주북조리연예인봉사단 소속 가수가 흥겨운 무대를 연출하고 장애인 노래자랑, 경품 추첨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됐다. 복지관 관계자는 “모두가 노래로 하나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진행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센터장 문정신)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최하고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가 주관한 ‘2017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미술·국악 두 분야가 선정돼 진행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 자신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강사·이용인·자원봉사자들과 서로 소통하며 심리정서 지원을 제공한다.

지성에 인성을 더하다



참좋은지역아동센터(센터장 황의식)는 지난달 4일부터 6일까지 2박3일간 김봉곤 청학동 예절학교에서 ‘지성에 인성을 더하는 참 좋은 리더가 되다’라는 주제로 ‘2017 비전트립’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예와 효’를 바탕으로 한 절도 있고 바른 언행을 가르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더 큰 비전을 품게 하는 시간이 됐다.

“행복을 나눠요”



약천사 자광원(원장 정수스님)은 오는 20일 중증장애인들의 문화탐방 기금마련을 위한 ‘제4회 행복나눔바자회’를 개최한다. 이번 바자회에서는 쌀, 잡곡, 건어물 등 농·수산물품과 의류, 생활용품 등의 후원 물품을 판매하고 이와 더불어 간단한 체험코너가 운영될 계획이다. 행복나눔바자회는 매 2년마다 한번씩 개최되며 수익금은 전액 문화탐방 경비로 쓰인다.

‘곱들락한 제주어 그리기’



신장장애인주간보호센터(센터장이두범)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후원하는 ‘장애인문화예술교육사업’에 선정돼 지난달 3일 ‘곱들락한 제주어 그리기’ 캘리그래피 프로그램을 개강했다. 신장장애인들의 문화예술적 감각을 향상시키고 여가·취미생활을 통한 사회활동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제주어 자작시 등 다양한 작품을 만들 예정이다.

시론

읍·면·동을 복지허브화 “행정복지센터”로

3~4년 전 우리 사회에서 이슈화 됐던 사건들이 기억난다. 2013년 연이어 용인, 성남, 울산, 논산시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자살, 양평군청 사회복지공무원 과로사,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의 동반자살 등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근무여건에 대한 문제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손길의 필요성이 언론 매체를 통하여 제기 되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양극화는 심화되고 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매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복지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복지 수준은 ‘그저 그렇다’라는 한탄의 불멘소리만 들린다.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찾아가는 복지행정

정부는 2016년부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내실화하자며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내걸고 국민의 복지체감도 제고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역점을 두어 강

도 높게 추진하기에 이른다. 읍·면·동 지역단위에서 주민이 느끼는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 복지사각지대를 사전에 발굴해 지원하는 ‘지역주민 중심의 문제 해결을 목표로 찾아가는 복지행정’의 실천 전략이다. 도에서도 2016년 8개 읍면동에 이어 올해 16개 읍·면·동을 추가 설치하여 24개 읍·면·동으로 대폭 확대해 나가고, 2018년까지 43개 전 읍면동을 복지허브화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이들 지역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 운영비 840만원, 방문상담 활성화를 위한 복지허브화 전용차량 각 1대, 복지담당공무원의 안전을 위한 스마트 위치각 3대 보급 등 신속하고 안전한 복지 업무를 지원한다.

이러한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여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복지허브화 사업도 일선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치부해 버리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은 한계에 부딪힌다.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

해서는 다음 몇 가지 사안의 협조가 필요하다.

첫째, 지역주민이 적극적인 관심이다. 내 이웃에 빈곤가구가 있는지,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들의 참여와 협조이다.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역의 자생단체와 함께 찾아내고 지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정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되어 맞춤형 복지팀과 함께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맞는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스스로 행복을 이룩, 밝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때 읍·면·동이 도민이 행복한 행정복지센터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주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장

기고

365일 장애인 권리 보호받는 사회 되길



안지현
노형동 사회복지담당

내 동생은 지적1급 장애인이다. 인지능력이 세 살짜리 아이보다 낮아서 기분이 좋으면 소리를 크게 지르고 좋아하는 프로그램 볼 때면 TV 볼륨을 마구 높여 동네를 시끄럽게 만든다.

한번은 동생이 만들어낸 소음에 화가 잔뜩 난 이웃집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왔다. 아주머니가 다짜고짜 던진 첫마디는 어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리라는 말이었다. 엄마는 연신 죄송하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하필 그날은 엄마의 생

신이었다. 그날 엄마의 슬픈 표정은 아주머니의 폭언보다 나를 더 아프게 했다.

하지만 나는 동생을 괴롭히던 꼬마아이들도 우리에게 이사를 가라던 아주머니도 원망한 적이 없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와 확연히 다른 존재를 불편하게 느낀다. 그 불편함을 드러냈다고 하여 어떠한 교육도 받지 않은 그래서 소양이 갖춰지지 않은 꼬마아이들을 원망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웃집 아주머니 또한 동생이 만들어 낸 소음공해에 대한 피해자였고 그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언젠가 필리핀에 6개월 간 지내며 필리핀 곳곳을 여행한 적이 있다. 그곳에서 내 동생 같은 지적 장애인들을 길 곳곳에서 만날 수 있었다. ‘여기는 왜 이렇게 지적 장애인들이 많을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필리핀 친구가 그 의문에 대해 이

런 이야기를 해주었다.

“필리핀에서는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을 이웃으로 두면 행운이 찾아온다고 생각해”

자폐아이를 둔 연예인이 TV에 나와 자신의 아이는 사람들의 시선이 아파서 대한민국을 떠나 필리핀에서 살고 있다고 한 말이 떠올랐다.

누군가 나에게 어떤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라 생각하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다수가 소수를 배려하는 나라. 다수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나라. 그런 사회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 이상적인 나라이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적어도 이날 하루만큼은 장애인을 배려하는 날이기를. 더 나아가 365일 장애인이 비장애인이 누리는 권리를 똑같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칼럼

좋은 행복·나쁜 행복

행복이란 인간이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의 가치다. 톨스토이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셋이라 했다.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라는 시간 속에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내게 필요한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라 한 것. 현재를 놓치지 말고, 필요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이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일, 이타적(利他的)인 삶을 행복 곧 자신의 삶의 가치라 했다.

행복이라고 무조건 좋은 거라는 생각은 잘못이다. 찌는 날씨에 피서한다고 책을 펴고 앉았다 ‘좋은 행복·나쁜 행복’이라는 글을 읽고 놀랐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심리학과 교수의 연구 결과가 나와 있었다. 우리 몸에는 ‘나쁜 행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눈이 번쩍 떠었다. 면역 조건이 동일한 80명의 성인을 조사 대상으로 했다 한다. 사회적 교류나 성취감으로부터 오는 ‘목적 지향적 행복’과 맛있는 것을 먹는 등 단순히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부터 오는 ‘쾌락적 행복’을 구분해 면역 세포에 차이가 생기는지를 실험한 것.

행복에 대한 해석과 인식

결과는 쾌락적 행복의 경우, 혈액 단핵구세포에서 스트레스와 연관돼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염증 발현 유전자가 증가하는 반면, 목적 지향적 행복은 이 유전자가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다.

정신적으로는 두 가지 행복을 똑같이 느끼지만, 몸은 어떤 행복감인지 이미 알아채고 달리 반응한다. 먹고 마시면서 즐긴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쾌락적 행복감을 가질 때 신체는 감정적이 될 뿐만 아니라 무의미한 열량 소모를 많이 한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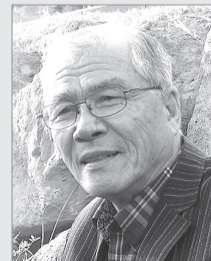
행복감이란 대체로 찰나적·말초적·감각적인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행복에 대한 해석과 인식의 분명한 수용 자세다.

여름이 코앞이다. 도사(道士)이거나, 체질적으로 더위를 타지 않는 사람이면 모를까, 연일 이어지는 열대야와 타오르는 불볕더위에 투덜대지 않는 사람은 별반 없을 것이다.

한데 놀라운 일이 있다. 무더위 속에서도 독서량이 더 많다는 통계가 있다. 무더운 여름이 목적 지향적 행복을 더 느끼는 계절이 된다니 놀랍다.

하기야 여름을 독서로 뜻있게 보낼 수도 있을 것 아닌가.

책을 읽다 힘들면 간간이 숲길을 거닐면 어떨까. 행복감을 맛보게 되리라.



김길용
본지 편집위원·시인

제19대 대통령 후보에게...사회복지계 제언

“복지부장관이 사회부총리 겸임해야”

복지수요 부응...사회분야 정책 총괄·조정 필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난 달 12일 국회 정론관서
사회복지계 ‘5대 제언’ 전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복지국가
되기 위해서는 성숙한 민관 협치를 통한
사회복지가 실현돼야 한다.”



▲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지난달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회복지계 제언을 발표하고 있다.

복지국가 실현 위한 ‘민간복지 역할’ 강조

서상목 회장(한국사회복지협의회)은 지난달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19대 대선 후보께 드리는 사회복지계 5대 제언’을 밝혔다.

서 회장은 내용발표에 앞서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라며 “이는 국가 재정 확대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민간과 함께 노력해야만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 출발해 지금까지 많은 변화를 거듭해왔고, 1980년대 이후 관련 입법을 통해 양적·질적으로 급성장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거듭났고 그 중심에는 민간복지의 활약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국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조화로운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

그러면서 “민간복지부문의 발전은 사회혁신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혁신적 ‘복지생태계’가 조성되면 경제와 복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와 경제의 융합적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와 시장경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여 국민의 복지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사회분야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복지계 ‘5대 제언’

- ❶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두 기구의 긴밀한 협력 등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파트너십’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민관 협력’이 가능하도록 모든 시·군·구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되도록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등 제도적인 틀을 갖춰야 한다.
- ❷ **사회복지는 규제가 아닌 육성·지원의 대상**
규제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분야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규제가 생겨 사회복지현장을 경직시키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시작하는 규제혁신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가 처한 ‘고용절벽’ 문제를 극복하려면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큰 사회복지분야를 일자리 창출의 보고(寶庫)로 만들고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 ❸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사회복지가 미래사회 유망분야라고 평가받지만 실제 1백만 명에 달하는 관련 종사자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전달되기 위해 적정 임금 지급, 법정 근로시간 준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 ❹ **함께 성장하는 기업과 지역사회**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단순한 비용지출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투자라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다. 기업 사회공헌활동이 지역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과 지역을 연계한 ‘민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회공헌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기업에게 정례적 포상,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 ❺ **온 국민이 함께하는 나눔문화 만들기**
기부는 소득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구조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는 범국민적 기부문화 활성화를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고액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한도 확대 등 세법과 상속증여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고액의 사전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기부연금제도’ 도입, 지속적인 계획기부와 이에 대한 혜택이 따르는 세법 개정 등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도움 받던 나라에서 도움 주는 나라로, 그 중심에는 민간복지 활약 민간복지 활동 촉진 위해...육성·지원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또한 “민간복지계는 ‘복지한국의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회장은 제언문 총론을 통해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산업화를 통한 고도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시 민간복지에

조했다.

또한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다양한 복지 욕구 및 수요 증가로 관련 정책과 제도를 통한 국가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됐지만 한편으로는 민간복지가 규제와 감독으로 이어졌다”며 “민간복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에서 육성·지원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언문 각론을 통해서 사회통합형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다섯 가지 제언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 ▲사회복지는 규제가 아닌 육성·지원의 대상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함께 성장하는 기업과 지역사회 ▲온 국민이 함께하는 나눔문화 만들기 등을 제시했다.

시설탐방

(86)우도살롬요양원

섬 속의 섬 우도에 하나뿐인 요양시설

지역아동센터도 2005년 설립

우도 천진항에서 하선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벗 삼아 걸으니 20여분이 채 걸리지 않아 이번 시설 탐방지인 우도살롬요양원(원장 박태식, 이하 요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우도 연평리 마을에 2층 건물로 위치해 있는 요양원의 탄생배경에 대해 먼저 물었다.

박태식 원장은 “지난 2004년 우도교회 목사로 부임하면서 이곳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교회의 급한 일들을 처리하고 나니,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아이들과 노인 분들이었다. 학교 외에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전혀 없어 방법을 고심하다 다음해인 2005년에 우도지역아동센터를 먼저 설립하게 됐다. 아이들을 위한 일을 해결하니 자연스레 관심은 돌봄을 잘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향했다. 마침 추자도에 노인요양시설이 개소했다는 소식이 들렸고 이곳저곳에서 관련 정보와 도움을 받아

2008년에 ‘소규모노인요양시설 가형’이란 형태로 지역아동센터 옆에 건물을 지어 시작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요양원은 총 면적 366.82㎡(120평)로 사무실,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세탁실, 주방을 1층에 배치하고 2층에는 어르신요양 위주의 생활실, 목욕실, 간호실로 구성돼 있다.

프로그램은 건강체조, 물리치료, 재활운동, 노래부르기, 목욕 등을 실시하고 월 1회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찾아와 어르신을 위한 특별공연을 펼친다.

박 원장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지만 인력이나 자원부분에 제한이 있어 어려움이 많다”라고 답하고 “교통편이 제한돼 외부봉사자들이 많이 찾지 못하지만 가끔 손길이 닿아 공연·말벗·청소 등의 도움을 줄 때면 어르신을 비롯한 전 직원이 힘이 난다”라며 “교통이 불편하지만 재능을 가

진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찾아와 어르신을 즐겁게 해 드렸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말했다.

입소정원은 15명으로 개소 이레 단 한번도 정원을 채워 본 적은 없으며, 현재 10분(남2, 여8)의 어르신이 생활하고 있다.

“홍보나 대상자 부재는 아닌지”하고 묻자, 박 원장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어르신들은 많이 계신다. 만날 때마다 홍보도 종종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 입소를 잘 안하신다.”라며 “특이한 건 한 분이 돌아가시거나 퇴소를 하면 곧 한 분이 들어와 최근 5년 동안 항상 10~11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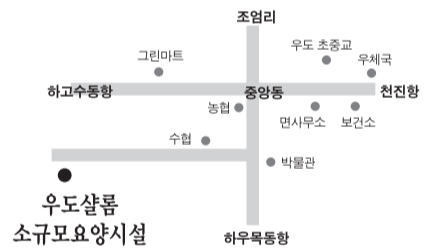
그리고 조심스레 “우도가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도서지로 구분돼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가 지급된다”며 “요양원 입소시 이 지원이 끊기는데 아무래도 이런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영향이 큰 것 같다.”고 얘기했다.



▲ 우도살롬요양원은 현재 10분(남2, 여8)의 어르신이 생활하고 있고, 재능을 가진 외부봉사자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다.

운영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는 구인을 뽑았다. “섬 지역이기에 일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다. 대부분의 종사자가 외부에서 오는데 일년을 채 못 넘기고 그만두는 경우가 다반사다. 임금도 좀 더 책정하고 숙소도 마련해 주고 있다”라며 “더도 말고 삼년씩만 일해 준다면 좋겠다.”고 답했다.

앞으로의 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까지 요양원을 이용에 대한 개념이 아닌 ‘부모를 포기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라며 “부모를 잘 모시는 방법 중 하나가 ‘우도살롬요양원’을 이용하는 것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홍닥터 41

공소시효 제도



황인철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홍닥터

지난 호에서는 민사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에 대해 살펴봤는데 형사 제도에도 이와 비슷한 공소시효가 존재한다. 공소시효는 범죄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하는데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맞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경우에 범죄가 없어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수사 및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제도이다.

◆ 공소시효 존재 이유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흐르더라도 지은 죄에 대해 마땅히 벌을 주어야 하지 않느냐

는 입장에서 보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지만 공소시효 제도는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범죄의 사회적 관심이 미약해져 가벌성이 감소하고 범인이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과 증거가 희미해져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법적 안정을 도모하고 형법권의 적용을 기하려는 데 그 존재 이유가 있으며 대다수 국가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현재 형사소송법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25년의 시효를 적용하며 그 아래로 15년, 10년, 7년, 5년, 3

년, 1년까지의 공소시효를 정해두고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사기죄의 경우 10년, 절도죄 7년, 폭행죄는 5년이 지나면 범인을 처벌할 수가 없게 된다.

◆ 공소시효 예외 규정

그런데 공소시효에는 예외가 있다. 우선 법에서 명문으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2015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중대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목적으로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졌다(일명 ‘태완이법’). 또한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중대 성범죄의 경우에도 공소시효는 적용되

지 않는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범죄의 경우에 공소시효는 그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시작되는 예외 규정도 존재한다.

범인이 공소시효 기간 동안 숨어 지내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 오랜 시간이 흘렀다면 어떻게 될까?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못 박아 놓았기 때문에 처벌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계속 귀국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어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